

익산시 '다다영등 얼막축제' 성료

익산 모현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난달 26~28일, 방문객 1만5000명 다녀가... 문전성시 이뤄 가수 공연·특별 이벤트·먹거리·다이어움 혜택 등 풍성



익산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2024 다다영등 얼막축제'에 1만 5천여 명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루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가을밤을 뜨겁게 달군 다다영등 얼막축제가 익산 영등상권을 들쭉이게 했다. 익산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2024 다다영등 얼막축제에 1만 5천여 명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루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영등공원에서 진행된 얼막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하이트진로의 시원한

맥주 협업과 더욱더 탄탄해진 먹거리 구성으로 영등상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3일간 가수 하이키, 브이오에스(VOS), 양지밴드, 뉴진스님, 마크툼, 딥플로우, 송하에 등은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여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이어 DJ들의 흥겨운 디제잉 공연은 영등상권을 뜨거운 열기로 물들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아울러 팔씨름의 달인 홍지승과 힘을 겨누는 특별 이벤트를 비롯해 곳곳에서 진행된 장기자랑, 버스킹, 영수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부담없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이어움으로 결제시 다이어움 10% 추가 적립 혜택까지 제공했다.

익산시는 교통 혼잡과 인파 밀집에 대비해 행사장 안전 관리에도 힘썼다.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순찰, 교통 단속, 안전 점검 등을 진행했다.

이용선 영등상권 상인회장은 "얼막 축제를 계기로 영등상권이 더욱 생동감 넘치는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영등상권 코스프레 대회와 다양한 버스킹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젊은 감각과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진 영등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휴식공간 없이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서부권에 쉼터를 추가로 마련했다. 시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모현동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램을 제공해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이번에 조성된 쉼터는 2021년 전북 최초로 어양동에 문을 연 동부권 쉼터에 이은 두 번째 공간이다. 기존 어양동 쉼터가 인소문을 타고 활성화되면서 서부권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추가 쉼터 조성을 추진했다. 쉼터의 주 이용자인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삼점가가 주로 위치한 모현동 선화로3길 28에 조성했다.

쉼터는 30㎡ 규모로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된다. 내부에는 피로를 해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와 휴대폰 충전기, 정수기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10월부터 상담과 심리치유 프

그램을 제공해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쉼터를 이용한 대리기사는 "쉼터 덕분에 대기하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동부권에 이어 서부권 이동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쉼터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는 지난해 기준 900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다이어움 성공취업 박람회 성황

익산 우수 식품기업 등 52개사 · 구직자 900여명 참여

익산 새 시대 열려... 54년 만의 신청사 이전

4~14일 부서 순차 입주

익산시가 54년 만의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지난 30일 신청사 입주식을 개최했다.



정현을 시장은 "우리 시민들과 직원들의 염원이었던 신청사가 완공되며 익산시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신청사 건립을 통해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속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순차적으로 부서 입주를 진행한다.

10월 중으로 이전 절차를 모두 마치고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축제 'NS푸드 페스타' 현장에서 진행된 '익산 다이어움X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취업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익산시는 지난 26~27일 진행된 박람회에 구직을 원하는 시민, 식품관련 전공 대학생, 예비 취업자 등 900여 명이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업박람회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15개사를 비롯해 지역 우수 식품 기업 등 52개사가 참여했다.

22개사는 인사담당자가 현장에서 200여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으며,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릴 예정이다.

간접참여한 30개사에도 접수된 이력서 평가와 개별 면접을 거쳐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중소벤처기업청과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관기관 참여를 통해 취업 정보 제공과 일자리 상담에도 힘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직무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컬러진단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마련돼 예비 취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지난 27일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분석 경진대회'는 중소 식품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전국에서 참가자를 선발하고 2개월간 우수 식품기업 현장자와 직무역량 강화 멘토링을 거쳤다.

최종 본선에 오른 8팀(전북대 4개팀, 원광대, 성균관대, 부산대, 경희대)이 식품기업 분석 개선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경희대의 '식식로트팀'이 최종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지역 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군산시는 지난 30일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치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이다. 사망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사망자 재산에 대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1년이 지난 후부터는 기관별 개별 신청), 피후견인 재산의 경우 제한이 없다.

신청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고, 기타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또한,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